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EASY 세계사 모의고사 6회 정답과 해설

## 빠른 정답

1	③	2	④	3	①	4	⑤	5	③
6	②	7	①	8	⑤	9	⑤	10	④
11	⑤	12	①	13	③	14	④	15	②
16	④	17	③	18	①	19	⑤	20	②

### ※ 정답과 해설 참고사항

1. 난이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쉬운 연표

★★★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어려운 연표

2. 자료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 : 핵심 KEYWORD! 반드시 알아야 함!

⇒ 모르는/헛갈리는 정보라면 반드시 복습할 것!

**파란색** : 자료 분석에 도움을 주는 세부 정보

⇒ 가볍게 복습할 것!

**노란색 배경** : 자료 분석에서의 결정적 단서

3. EBS 연계교재 또는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문제 풀이에 동원되는 내용은 **회색&기울임체**로 표시했습니다. 암기 대상이 아니므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 일부 문제는 하단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5. 용어의 표기는 EBS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의 표기를 따랐습니다.

### ★ 예상 등급컷 ★

1등급 : 40점 / 2등급 : 37점 / 3등급 : 34점

### ★ 예상 오답률 TOP5 ★

1등 : 9번 - 십자군 전쟁 관련 문제

2등 : 14번 - 신헌로 개척 관련 연표 문제

3등 : 11번 - 영국-미국 관계 문제

4등 : 18번 - 자와할랄 네루 인물 문제

5등 : 20번 - 영국-오스만 제국 관계 문제

1. ③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즉위 후 수 년간 내정에 힘쓰던 그는, 우루크와 이신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영토 확장 사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암하드의 비호 아래 놓여 있던 마리를 지원하여 암하드를 전복시켰고, 마리와 함께 라르사를 정복하였으며, 곧이어 마리까지 정복하였다. 한편, 그의 정복 활동에 위협을 느낀 엘람, 구티, 에쉬눈나 등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는 이들을 각개격파하여 모두 정복하였다. 이리하여 **바빌론 일대에 국한되어 있던 아무르인의 도시 국가**가, 그의 대에 유프라테스강 상류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대제국이 되었다.

**'바빌론 일대에 국한되어 있던 아무르인의 도시 국가'** 등을 통해 밀줄 친 '그'가 다스린 국가는 **바빌로니아 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바빌론 일대에 국한되어 있던 아무르인의 도시 국가**

: 바빌론 일대에 국한되어 있던 아무르인의 작은 도시 국가가 밀줄 친 '그'의 대에 대제국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그'가 다스린 국가는 아무르인이 바빌론 일대에 세운 바빌로니아 왕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은 복수주의 성격이 나타나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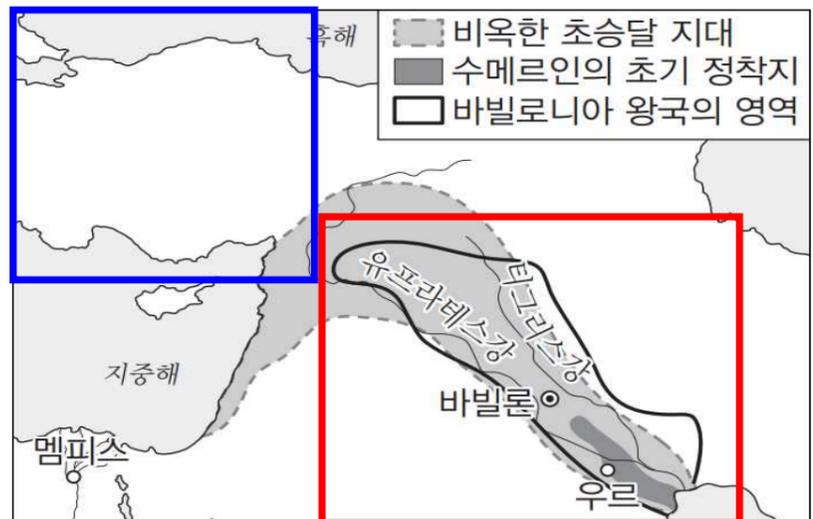
오답인 이유 |

① 혈연 관계에 기반한 봉건제를 시행한 것은 중국의 주입니다.

② 바빌로니아 왕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바빌론)**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나톨리아반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히타이트입니다.

④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한 것은 **인더스 문명**입니다.

⑤ 태양신 '라'의 아들을 자처한 것은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특강 9p 메소포타미아 문명 관련 이미지

# 정답과 해설

2. ④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집정관에 의해 법률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10인관들이 법률을 제정하였고, 열두 개의 표에 기록하여 광장에 걸었다. 그러나 법률이 청동판에 기록되었는지 석판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것이 갈리아인들의 침공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열두 개의 표에 기록하여' 등을 통해 밀줄 친 '법률'은 12표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열두 개의 표에 기록하여

: 밀줄 친 '법률'이 열두 개의 표에 기록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법률'은 관습법의 내용 일부를 열두 개의 판에 기록하여 성문화한 12표법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12표법은 관습법의 내용 일부를 성문화한 법률입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정리한 법률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로마법 대전)입니다.
- ② 라티퐁디움 경영 제재와 관련된 법률은 곡물법입니다.
- ③ 평민회의 입법권 투쟁의 결과와 관련된 법률은 호르텐시우스 법입니다.
- ⑤ 호민관직 설치의 12표법 제정 이전의 일입니다.

## ★ 로마의 주요 법률 ★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요소는 '법률'입니다. 이는 그리스 문화 또는 헬레니즘 문화와는 구별되는 로마 문화의 특징인 '실용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처럼 법률이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로마와 관련된 주요 법률의 제정 연도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수능특강에 언급되는 로마의 주요 법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B.C. 451	12표법	소송법, 가족법 등 사법(私法)
B.C. 367	리키니우스법	집정관 중 1명 평민에서 선출
B.C. 287	호르텐시우스법	평민회의 입법권 인정
B.C. 134	농지법	유력자의 토지 점유 제한
B.C. 123	곡물법	빈민에게 값싼 곡물 제공

한편, 로마의 법률은 로마 시민에게 적용된 시민법과, 로마 내 이민족에게 적용된 만민법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민법은 시민법에 비해 약화된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12년 로마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며 시민권과 만민법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3. ①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신바빌로니아의 왕 벨사사르가 연회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기 시작했다. 혼란에 빠진 벨사사르가 선지자 다니엘을 불러 해독을 명하니, 다니엘은 하느님이 왕국을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알려 주었다. 그날 밤, 다니엘의 말대로 (가)의 군대가 쳐들어 와 벨사사르를 죽였고, 그렇게 왕국은 멸망하였다.

'신바빌로니아의 왕 벨사사르', '(가)의 군대가 쳐들어 와 벨사사르를 죽였고, 그렇게 왕국은 멸망'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신바빌로니아의 왕 벨사사르, (가)의 군대가 쳐들어 와 벨사사르를 죽였고, 그렇게 왕국은 멸망

: (가) 국가가 신바빌로니아를 침공하여 벨사사르를 죽였고, 이로써 신바빌로니아가 멸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지방 총독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쇠퇴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수사와 달리 사르디스를 수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디스는 '왕의 길'의 끝에 위치한 도시이며,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 ③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아라비아반도 일대를 장악하지 못하였습니다.
- ④ 알라를 최고신으로 숭배한 것은 이슬람교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슬람교가 발흥하기 이전에 존재하였으며,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였습니다.
- 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이 발흥하기 이전에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전투를 벌인 것은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특강 46p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관련 이미지

# 정답과 해설

## 4. ⑤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가) : 증조부께서 왕조를 세우신 이래로 조상들의 덕이 충만하여, **나의 대에 이르러 왕조의 강역이 간다라부터 파탈리푸트라까지 인근까지 다다랐다.** ... (중략) ... 수도를 **푸르샤푸라**와 마투라 두 곳으로 하고, 카피샤를 여름 수도로 지정하고자 한다.

(나) :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며 나의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 (중략) ...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A] : 오직 부처의 가르침만이 진실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는 해탈에 이를 수 없으며, **부처의 가르침을 스스로 좇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B] : 부처의 가르침은 **큰 수레**와 같다. 그 수레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그 수레에 탈 수 있다. 그렇기에 **모든 중생들이 보살이 될 수 있다.**

**‘푸르샤푸라’, ‘나의 대에 이르러 왕조의 강역이 간다라부터 파탈리푸트라까지 인근까지 다다랐다.’** 등을 통해 (가) 인물은 **카니슈카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근거 1 | 푸르샤푸라

: (가) 인물이 푸르샤푸라 등을 수도로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푸르샤푸라를 수도로 한 쿠산 왕조와 관련된 인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거 2 | 나의 대에 이르러 왕조의 강역이 간다라부터 파탈리푸트라까지 인근까지 다다랐다.

: (가) 인물이 간다라부터 파탈리푸트라 인근까지 정복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 쿠산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왕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칼링가를 정복’,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 등을 통해 (나) 인물은 **아소카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근거 | 칼링가를 정복,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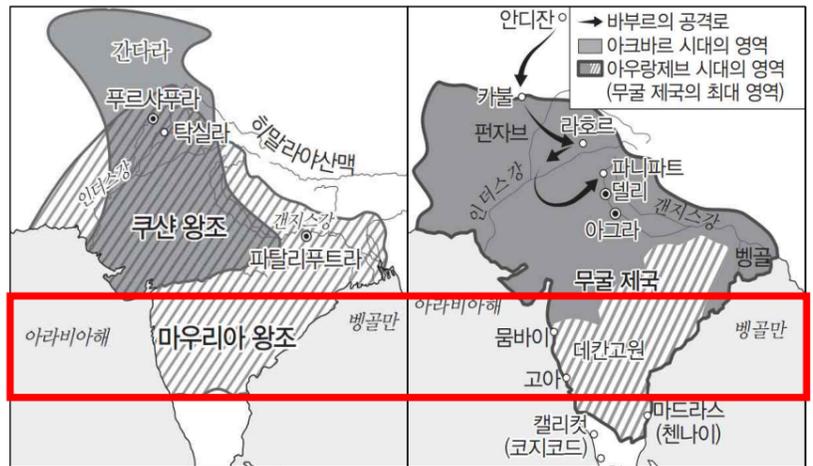
: (나) 인물이 칼링가를 정복하고 자신의 정복 활동을 되돌아 본 후, 진리를 추구하며 살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칼링가 전투에서 승리한 후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힘쓴 아소카왕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정답인 이유 |

⑤ 아소카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이며 데칸 고원 지역으로 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였습니다.

### 오답인 이유 |

- ① **‘부처의 가르침을 스스로 좇는 것이 유일한 해답’** 등을 통해 주장 [A]와 관련된 종교는 **상좌부 불교**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니슈카왕은 대승 불교의 가르침을 장려한 인물이며, 동아시아에 대승 불교를 전파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주장 [A]와 관련된 종교를 동아시아에 전파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② 장건은 기원전 2세기경(기원전 139년~기원전 126년)에 서역에 파견되었고, 쿠산 왕조는 1세기경에 건국되었으며, 카니슈카왕은 2세기경에 재위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서역에 파견된 장건의 일행을 맞이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③ **‘큰 수레(=대승), ‘모든 중생들이 보살이 될 수 있다.’** 등을 통해 주장 [B]와 관련된 종교는 대승 불교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소카왕은 기원전 3세기경에 재위하였고, 대승 불교는 기원전 1세기경에 등장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주장 [B]와 관련된 종교를 탄압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④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기원전 4세기경에 인더스강 유역을 침공하였고, 그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마우리아 왕조를 개창하였으며, 아소카왕은 기원전 3세기경에 재위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와 교전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특강 56p

마우리아 왕조 관련 이미지

2022학년도 수능특강 58p

무굴 제국 관련 이미지

### ★ 출제자의 COMMENT ★

정답으로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5번 문제에서는 **상좌부 불교와 대승 불교를 구분하고 그와 관련된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평가원에서 다루지 않은 지 꽤 오래 된 소재라 상좌부 불교와 대승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자칫 소홀히 생각하기 쉬우나, 엄연히 수능특강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해탈 VS 중생의 구제’** 정도의 사상적인 차이와 **‘동남아 지역 VS 동북아 지역’** 정도의 전파 지역의 차이 등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정답과 해설

5. ③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태종께서 새 왕조를 빛나게 하시고 현명한 성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실 때, 대진국에 아라본이라는 높은 덕을 가진 분이 있었다. …(중략)… 험한 길을 달려 정관 9년에 이곳에 이르렀다. 정관 12년 7월에 …(중략)… 대진국의 큰승려 아라본이 멀리 이곳의 황궁까지 와서 황제를 알현한 후 자신이 믿는 경교의 경전과 성상을 바쳤는데, 그 교리가 현묘하고 그 종지는 생성 요체를 잘 밝혔다. …(중략)… 그리하여 담당 관청이 곧 이곳의 서북쪽 구역에 대진사를 세우고, 21명의 승려를 인가해 주었다.

정관, '이곳의 황궁까지 와서 황제를 알현' 등을 통해 밀줄 친 '이곳'은 장안(시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정관, 이곳의 황궁까지 와서 황제를 알현

: 정관 12년에 대진국의 승려가 밀줄 친 '이곳'에 있는 황궁에서 황제를 알현한 후 경전을 바쳤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이곳'은 당의 수도인 장안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장쉐량은 시안에서 장제스를 감금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자금성이 건설된 곳은 베이징입니다.
- ② 남면관제는 요(거란)가 정복한 지역 중 한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적용된 통치 체제입니다. 요(거란)가 정복한 한족 거주 지역은 연운 16주입니다.
- ④ 광무제가 도입으로 한 곳은 튀양입니다.
- ⑤ 「청명상하도」의 배경이 된 곳은 카이펑입니다.

★ 중국 주요 왕조의 수도 ★	
상	은허
주	호경 → 낙읍
진(秦)	함양
전한	장안
후한	낙양 → 장안 → 허도
진(晉)	낙양 → 장안 → 건강
북위	성락 → 평성 → 튀양 → 장안
수	장안
당	
송	카이펑 → 임안
요	상경임황부
금	상경회녕부 → 베이징(중도) → 카이펑(남경)
서하	흥경부
원	베이징(대도)
명	난징 → 베이징
청	푸순 → 라오양 → 셴양 → 베이징

6. ②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 과거 우리 ㉠왕조의 가난한 자들은 호민으로부터 돈을 꾸고 이자를 냈습니다만, 지금의 가난한 자들은 관아에서 돈을 꾸어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자를 낮게 하므로 백성들은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묘법은 이미 제 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다만 모역법과 보갑법, 시역법에는 이익과 해로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얻어 시행하면 큰 이익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면 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 금이 요를 공격하자, 요 천조제는 ㉡왕조에게 망명을 요청하였는데, ㉡왕조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금을 암묵적으로 도와 주었다. 이후 ㉡왕조는 금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에 의해 '하국왕'으로 책봉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금에게 비단길 지역의 패권을 인정받았고, ㉡왕조는 비단길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청묘법, '모역법과 보갑법, 시역법' 등을 통해 밀줄 친 ㉠ 왕조는 (북)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청묘법, 모역법과 보갑법, 시역법

: 밀줄 친 ㉠ 왕에서 시행된 법률로 청묘법, 모역법, 보갑법과 시역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 왕조는 왕안석의 개혁이 이루어진 (북)송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금에게 비단길 지역의 패권을 인정' 등을 통해 밀줄 친 ㉡ 왕조는 서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금에게 비단길 지역의 패권을 인정

: 밀줄 친 ㉡ 왕조가 금으로부터 비단길 지역에 대한 패권을 인정받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 왕조는 금과 비슷한 시기에 비단길 지역, 즉 중국 서북 지역에 위치하였던 서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서하는 북송이 멸망한 후, 금에게 칭신한 후 조공 책봉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의 "하국왕"으로 책봉 부분이 금과 서하의 조공 책봉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답인 이유 |

② (북)송과 서하가 군신 관계를 맺기는 하였지만, (북)송은 서하에 칭신하지 않았습니다. 칭신한 것은 서하이므로, 서하는 그 대가로 (북)송으로부터 세폐를 받았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북)송 대에는 농업이 발달하며 지주가 소작 농민(전호)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었습니다.
- ③ 서하는 한자의 형태를 변형한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 ④ 서하는 11세기 중엽(1038년)에 탕구트족 출신의 이원호가 건국하였습니다.
- ⑤ 서하는 (북)송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세폐를 받았습니다.

# 정답과 해설

7. ㉠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신(臣)이 전능하신 폐하께 아뢰옵니다. 지난 해 폐하께서 **야만스러운 랑고바르드로부터 교황 성하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교황 성하께 드림으로써 동방을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서방입니다. 지난 해 아바스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쳐 온 아브드 알 라흐만이 코르도바에서 제 세력을 규합하고 스스로를 에미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장하면 우리의 왕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공격하여 이베리아반도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만스러운 롬바르드로부터 교황 성하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교황 성하께 드림, 동방을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서방입니다., '지난 해 아바스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쳐 온 아브드 알 라흐만이 코르도바에서 제 세력을 규합하고 스스로를 에미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등을 통해 밑줄 친 '폐하'는 **피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동방을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서방입니다**

: 랑고바르드 족이 동방의 문제로, 이베리아반도 지역이 서방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폐하'는 이베리아반도와 이탈리아반도 사이, 즉 프랑크 지역을 다스렸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야만스러운 롬바르드로부터 교황 성하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교황 성하께 드림**

: 밑줄 친 '폐하'가 랑고바르드족을 공격하고, 그 땅을 교황에게 주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폐하'는 랑고바르드족을 공격하여 얻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한 프랑크 왕국의 피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지난 해 아바스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쳐 온 아브드 알 라흐만이 코르도바에서 제 세력을 규합하고 스스로를 에미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 밑줄 친 '폐하'가 재위할 당시 아바스로부터 도망쳐 온 아브드 알 라흐만이 코르도바에서 세력을 규합하였다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폐하'가 재위할 당시 후우마이야왕조가 건국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밑줄 친 '폐하'는 8세기 중엽에 재위한 프랑크 왕국의 피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ㄹ. 피핀은 교황의 지지를 받아 메로베우스 왕조를 축출하고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ㄱ. 프랑크 왕국의 군주들은 클로비스가 개종한 이후 모두 로마 가톨릭교(아타니사우스파)를 믿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핀은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ㄴ. 옛 서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ㄷ. 아헨 지역에 궁정 학교를 세운 것은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8. ㉡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연 태자 희단의 명을 받아 형가가 함양에 도착한 후 **한, 조, 위, 초를 차례로 멸망**시킨 (가)을/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이때 형가가 단검을 소매 안에 숨기고 (가)에게 다가갔는데, 검의 날에 소매가 찢어져 단검이 드러나게 되었다. 놀란 (가)이가 몸을 일으켜 장검을 뽑으려 했으나 잘 뽑히지 않았다. 형가가 (가)을/를 쫓았으나 신하들이 형가를 방해하였다. 그 사이 (가)이가 장검을 뽑아들어 형가를 내리치니 형가가 죽었다. 형가의 암살 시도의 배후가 연임을 알게 된 (가)은/는 **곧바로 연을 쳐 멸망**시켰고, **형가의 가문이 대대로 살던 제까지 멸망**시켰다. 이로 인해 6국의 한을 풀겠다는 형가의 뜻은 완전히 좌절되었고, 중국 대륙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한, 조, 위, 초를 차례로 멸망, '곧바로 연을 쳐 멸망시켰고, 형가의 가문이 대대로 살던 제까지 멸망'** 등을 통해 (가) 인물은 **진 시황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한, 조, 위, 초를 차례로 멸망, 곧바로 연을 쳐 멸망시켰고, 형가의 가문이 대대로 살던 제까지 멸망**

: (가) 인물이 한, 조, 위, 초, 연, 제를 멸망시켰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6국(연, 조, 위, 한, 제, 초)을 멸망시켜 통일을 완수한 진 시황제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 **진 시황제**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① 흉노와 화친을 맺은 것은 한 고조입니다.

② 오경박사를 설치한 것은 한 무제입니다.

③ 노비 매매를 금지한 것은 왕망입니다.

④ 진승·오광의 난은 **진 시황제 사후**에 전개되었습니다. 진승·오광의 난을 진압한 것은 **이세황제(호해)**입니다.

## ★ 진(秦) 주요 사건 연표 ★

인물	연도	사건
진 시황제	B.C. 221	전국 통일
		몽염의 흉노 원정
	B.C. 213	분서
	B.C. 212	갱유
<i>이세황제(호해)</i>	B.C. 209 ~ B.C. 208	진승·오광의 난
<i>자영</i>	B.C. 206	진 멸망

# 정답과 해설

9. ⑤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수도의 모든 로마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약탈당했다. ... (중략) ... 십자가와 성경을 품을 정교회의 사제들이 공격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했으나 프랑크인들은 그들의 간청을 신경 쓰지 않았다. 프랑크인들은 그들을 모두 죽였고 교회를 약탈했다.

‘수도의 모든 로마인’, ‘정교회의 사제들이 공격자들에게 목숨을 구걸’, ‘프랑크인들은 그들의 간청을 신경 쓰지 않았다.’ 등을 통해 밑줄 친 ‘프랑크인들’은 제4차 십자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수도의 모든 로마인

: 수도에 있는 로마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장소는 로마의 수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정교회의 사제들이 공격자들에게 목숨을 구걸

: 수도에 있는 로마인들 중 정교회의 사제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장소는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3 | 프랑크인들은 그들의 간청을 신경 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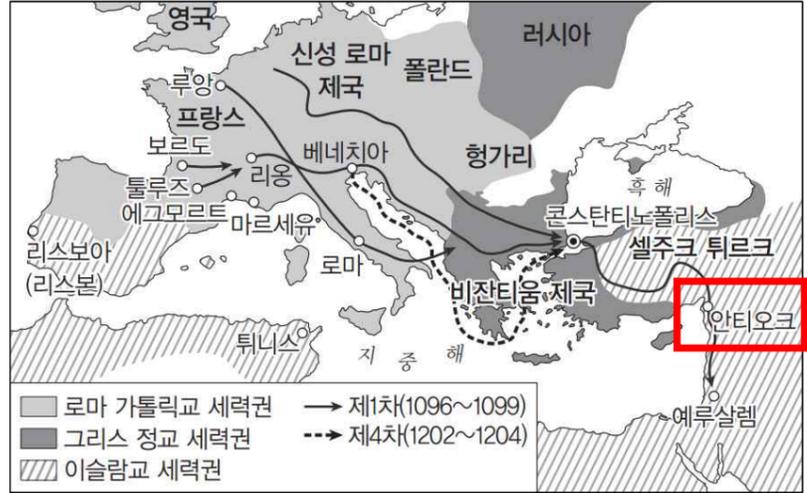
: 프랑크인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서유럽 세력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한 사건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제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인노켄티우스 3세는 1198년~1216년에 재위하였고, 제4차 십자군은 1202년~1204년에 활동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4차 십자군은 인노켄티우스 3세 재위 기간에 활동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제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후 약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폴리스보다 동쪽에 위치한 안티오크를 공격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크를 공격한 것은 제1차 십자군입니다.
- ②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한 것은 제1차 십자군입니다.
- ③ 제4차 십자군은 1202년~1204년에 활동하였고, 흑사병은 14세기 중엽에 유행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흑사병의 유행은 제4차 십자군의 활동과 관련이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④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회의 대분열을 수습하고 교회 개혁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특강 81p 십자군 전쟁 관련 이미지

## ★ 제1차 십자군 VS 제4차 십자군 ★

	제1차 십자군	제4차 십자군
관련 교황	우르바누스 2세	인노켄티우스 3세
경로	콘스탄티노폴리스 → 니케아 → 안티오크 → 예루살렘	베네치아 → 자라(달마티아) → 콘스탄티노폴리스
결과	예루살렘 왕국 수립 & 비잔티움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탈환	라틴 제국 수립 & 비잔티움 제국의 망명 정부 수립

## ★ 출제자의 COMMENT ★

9번 문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료 해석 능력을 요하는 정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료 해석 끝판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개념 학습과 더불어 자료에 등장하는 정보와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의 토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되짚어 보시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생각해 보신 후, 이 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출 문제※ - '자료 분석 끝판왕'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알렉산드로스의 사망 이후', '파탈리푸트라에 파견')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독일 제국', '과거 영토 중 일부에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번  
 ('론 강가의 기괴한 성채', '하루바빠 로마로 돌아가시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왕정복고와 혁명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가)의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나)의 힘은 강화')

# 정답과 해설

10. ④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요리토모**가 급사한 후, 그의 장남 요리이에게 뒤를 이었으나 부하에게 피살, 그 동생인 사네토모가 다시 그 뒤를 이었으나 조카에게 살해당하며 쇼군 가문의 직계가 3대 만에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막부의 붕괴로 이어지는 않았다. 쇼군 가문의 외척이었던 호조 가문이 싯켄으로 자리매김한 후, 쇼군을 허수아비삼아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요리토모** 등을 통해 밀줄 친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요리토모**

: 요리토모 사후 그의 아들이 연달아 살해되며 밀줄 친 ‘막부’를 이끌 쇼군 가문의 직계가 단절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개창한 가마쿠라 막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가마쿠라 막부 대에는 아시카가 가문과 천황이 연합하였고, 이들이 가마쿠라 막부를 붕괴시켰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감합 무역이 전개된 것은 무로마치 막부 대의 일입니다.
- ② 산킨코타이제가 실시된 것은 에도 막부 대의 일입니다.
- ③ 무사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헤이안 시대의 일입니다.
- ⑤ 오다 노부나가 조총 부대를 육성한 것은 무로마치 막부 대(전국 시대)의 일입니다.

★ 가마쿠라 VS 무로마치 VS 에도 ★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수도	가마쿠라	교토	에도
가문	미나모토 가문	아시카가 가문	도쿠가와 가문
시기	1185년 ~ 1333년	1336년 ~ 1573년	1603년 ~ 1867년
주요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아시카가 다카우지 & 아시카가 요시미쓰	도쿠가와 이에야스
특징	슈고&지토 임명 싯켄 정치 전개	명과 교류 (감합 무역)	중앙 집권적 봉건제 (산킨코타이제)
쇠퇴 원인	원의 침공으로 인한 혼란 & 내분	오닌의 난 ↓ 센고쿠 시대	개항 ↓ 막부 타도 운동

\* 밀줄 : 막부 개창자

11. ⑤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 1. 식민지 주민은 생명, 자유, 재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주권적 권력에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상기 권리를 양도한 일이 전혀 없다.
- 4. (가)의 기반은 인민이 입법 회의에 참가하는 권리에 있으며, (가)의 식민지인은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고, 대표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독점적인 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
  - 제1차 대륙 회의 선언문
- 모든 인간은 평등히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중략) ... 어떠한 정부라도 이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그 정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 (나) 독립 선언문

(가)의 식민지인은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고, 대표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독점적인 입법권을 부여, 제1차 대륙 회의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영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의 식민지인은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고, 대표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독점적인 입법권을 부여, 제1차 대륙 회의

: 제1차 대륙 회의에서 (가) 국가에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제1차 대륙 회의에 참여한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등을 통해 (나) 국가는 미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어떠한 정부라도 이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 (나) 국가의 독립 선언문에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국가는 미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미국은 마셜 계획을 통해 영국 등 서유럽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삼국 협상을 구성한 것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 ② 영국과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동맹 관계였습니다.
- ③ 미국은 크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④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한 것은 미국과 소련입니다.

# 정답과 해설

12. ①

난이도 | ★★☆☆(쉬운 연표)

자료 분석 |

(가) 청 제국과 러시아 제국은 화평을 맺어 양국의 무궁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네르친스크**에 모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 고르비차강의 발원지에서 대홍안령이 바다에 이르는 선을 경계로 남쪽은 청 제국이, 북쪽은 러시아 제국이 차지한다.

(나) 러시아 제국과 청 제국의 대표단이 **카흐타**에서 만나 양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 몽골과 시베리아 국경은 청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공동 위원회가 측정하여 확정한다.

**네르친스크** 등을 통해 (가) 조약은 **네르친스크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1689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근거 | **네르친스크**

: 청과 러시아가 네르친스크에서 국경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조약은 네르친스크 조약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카흐타** 등을 통해 (나) 조약은 **카흐타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흐타 조약은 **1727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근거 | **카흐타**

: 청과 러시아가 카흐타에서 국경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조약은 카흐타 조약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지정은제는 17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킬 것을 명하는 황제의 모습은 (가), (나) 조약이 체결된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② 매카트니 사절단은 건륭제 재위 시기(1735년~1796년)인 1793년에 청을 방문하여 황제를 알현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황제를 알현하는 매카트니 사절단원의 모습은 (가), (나) 조약이 체결된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③ 『사고전서』는 건륭제 재위 시기에 편찬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고전서』 편찬에 참여하는 관료의 모습은 (가), (나) 조약이 체결된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④ 백련교의 난은 건륭제~가경제 재위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백련교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의 모습은 (가), (나) 조약이 체결된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⑤ 오삼계는 1673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반란을 일으키는 오삼계의 모습은 (가), (나) 조약이 체결된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13. ③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는 **(가)**을/를 보고 '살아 있는 세계정신'이라며 감격하는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 지금 **독일은 (가)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파, '독일은 (가)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등을 통해 (가) 인물은 **나폴레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파, 독일은 (가)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 (가) 인물이 프로이센을 침략하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파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프로이센 등을 격파하고 프랑스 혁명 이념을 전파한 나폴레옹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나폴레옹은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 지역을 차지하는 데에 실패하였고, 에스파냐 지역도 위성국화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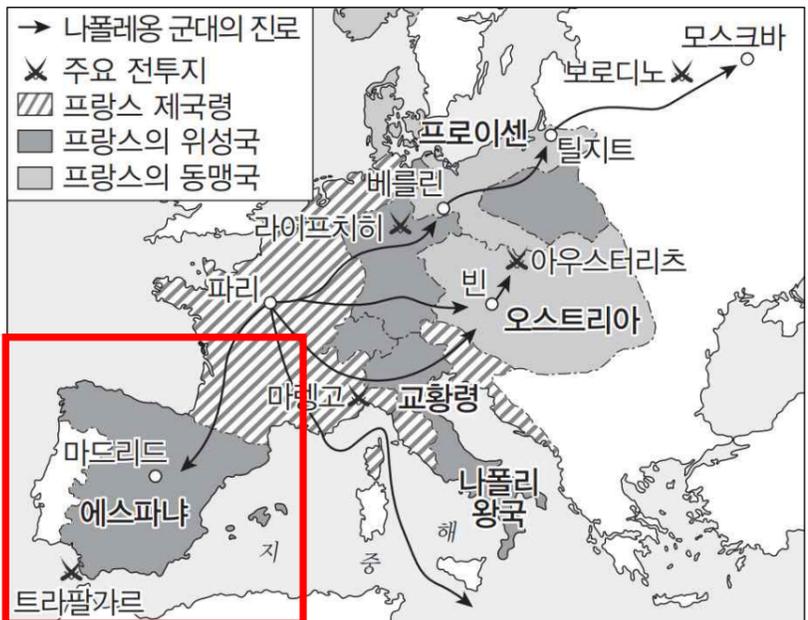
오답인 이유 |

①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영국과 휴전을 맺으며 대프랑스 동맹을 와해시켰습니다.

②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하였습니다.

④ 나폴레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제1 통령에 취임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⑤ 나폴레옹은 재산권 보장, 계약의 자유 등을 법으로 규정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특강 103p 나폴레옹 관련 이미지

# 정답과 해설

14. ②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다시 항해에 나섰다. **첫 번째로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한 포르투갈 왕국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임무를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에게 맡긴 것이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인도로 향하기에 앞서 대서양을 횡단해 브라질을 발견하였고, 다시 대서양을 횡단하여 희망봉을 돌아 인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고, 그의 선단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위대한 모험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그렇게 희망봉 앞바다에 잠들었다.

**‘첫 번째로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한 포르투갈 왕국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등을 통해 밑줄 친 ‘항해’는 **1500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첫 번째로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한 포르투갈 왕국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 밑줄 친 ‘항해’가 첫 번째 인도 항로 개척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항해’는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한 1498년으로부터 2년 후인 1500년에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콜럼버스는 1492년에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가격 혁명은 신항로 개척의 영향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격 혁명은 밑줄 친 ‘항해’ 이후에 전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② 레판토 해전은 1571년에 전개되었습니다.
- ③ 피사로의 잉카 문명 파괴는 16세기 초에 전개되었습니다.
- ⑤ 마젤란 일행은 1522년에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습니다.

### ★ 출제자의 COMMENT ★

14번 문제에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만 보고 밑줄 친 ‘항해’의 시기를 1488년이라 단정하였다면 문제를 풀 때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묻는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한 1488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료료를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주요 키워드 위주로 자료료를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의 풀이법이 효율적이긴 하나, 14번 문제와 같은 정교히 함정을 파 놓은 문제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사 과목은 타임 어택이 거의 없는 과목입니다. 굳이 조바심내지 않고,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가며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5. ④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사르데냐와 [가] 사이에 전쟁이 개시되는 경우, 프랑스는 즉각 군대를 보내어 사르데냐 왕국군과 함께 [가]와/과 대치한다.

- 프롱비에르 협정

사르데냐 왕국은 프랑스와 프롱비에르 협정을 체결한 후, **(가) 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하였습니다.

**‘(가) 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오스트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가) 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

: 사르데냐 왕국이 (가)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사르데냐 왕국에게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상실한 오스트리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②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베네치아 지역을 상실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오스트리아는 북독일 연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③ 관세 동맹 체결을 주도한 것은 프로이센입니다.
- ④ 가리발디의 의용대와 교전한 것은 이탈리아 남부에 자리잡은 (양)시칠리아 왕국입니다.
- ⑤ 비스마르크 제도 등을 점령한 것은 독일 제국입니다.

### ★ 관련 EASY 문제 ★

<2022학년도 EASY 세계사 N제 서양사 89번>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가)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면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베네치아를 넘겨주겠다고 하자, 이탈리아는 곧바로 오스트리아를 공격하였다. …(중략)… 프로이센은 이탈리아에게 약속대로 베네치아 지방을 넘겨주었다.

(나) 비오 9세는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왕국의 군대가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로마에 입성하였다. 이로써 교황은 60여 년간의 ‘바티칸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① 관세 동맹이 체결되었다.
- ② 시칠리아 왕국이 멸망하였다.
- ③ 청년 이탈리아당이 결성되었다.
- ④ 비스마르크가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였다.
- ⑤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 정답과 해설

16. ④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가) : 첫째, 신민들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둘째, **두마를 설치하고 의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셋째, **두마의 승인을 받지 않은 법률은 무효**임을 분명히 하겠다.

(나) : **차르의 신민인 귀족은 농노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 …(중략)… **농민은 일정 기간동안 법에 따라 자유 경작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으며, …(중략)… 동시에 농민에게 토지를 구매할 권리가 부여된다.

**'두마를 설치하고 의원 선거를 실시', '두마의 승인을 받지 않은 법률은 무효'** 등을 통해 (가) 인물은 **니콜라이 2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두마를 설치하고 의원 선거를 실시, 두마의 승인을 받지 않은 법률은 무효**

: (가) 인물이 두마를 설치하고 두마의 입법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피의 일요일 사건 이후 두마 설치와 두마의 입법권 보장 등을 약속한 니콜라이 2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차르의 신민인 귀족은 농노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 '농민은 일정 기간동안 법에 따라 자유 경작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 등을 통해 (나) 인물은 **알렉산드르 2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차르의 신민인 귀족은 농노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 농민은 일정 기간동안 법에 따라 자유 경작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

: (나) 인물이 농노에 대해 귀족이 가진 모든 권리를 철폐하고 농민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농노제를 철폐하고 농노를 자유민으로 만든 알렉산드르 2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알렉산드르 2세는 지속된 개혁의 실패에 불만을 품은 일부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인물은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 ②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인물은 표트르 대제입니다.
- ③ 크림 전쟁의 혼란을 수습한 인물은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 ⑤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한 인물은 니콜라이 1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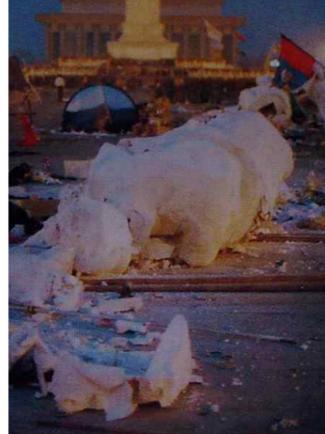
### ★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과 그 이후 ★

알렉산드르 2세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테러 단체 '인민의 의지'는 두 차례에 걸쳐 알렉산드르 2세에게 폭탄을 던졌고, 알렉산드르 2세는 두 번째 폭탄에 휘말려 사망하였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뒤를 이은 알렉산드르 3세는 개혁 정책으로 인해 아버지가 암살당하였다고 생각하여, 강압적인 반동 정치를 전개하였습니다.

17. ③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속보] 부서진 여신상,

**광장에 세워졌던 민주주의의 여신상**이 박살난 채 널브러져 있다. 광장과 동상을 지키던 시민들은 덩샤오핑의 명령을 받은 계엄군에게 학살되었다. 그곳에서 **덩샤오핑을 규탄하던 시민들**의 시신은 베이징 시내 곳곳에 버려졌다. 이로 인해 십수 일 간의 투쟁은 물거품이 되었다.

**'광장에 세워졌던 민주주의의 여신상', '덩샤오핑을 규탄하던 시민들'** 등을 통해 밑줄 친 '투쟁'은 **텐안먼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광장에 세워졌던 민주주의의 여신상, 덩샤오핑을 규탄하던 시민들**

: 자료와 관련된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덩샤오핑을 규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덩샤오핑을 비판하며 정치 민주화를 요구한 텐안먼 사건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텐안먼 사건 당시 학생과 지식인들이 텐안먼 광장에 모여 정치 민주화와 부정부패 추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류사오치 등 실용주의 노선은 텐안먼 사건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덩샤오핑은 집권 당시 일어난 텐안먼 사건을 진압하였습니다.
- ② 홍위병의 개입은 텐안먼 사건의 진압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홍위병이 개입한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인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 ④ 인민 공사 조직과 농업 집단화에 대한 반발은 텐안먼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민 공사 조직과 농업 집단화에 반발한 것은 류사오치 등 실용주의 노선이었습니다.
- ⑤ 중국이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한 것은 텐안먼 사건 이전의 일입니다. 중국이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하는 배경이 된 것은 덩샤오핑의 집권입니다.

### ★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 ★

실용주의 노선은 마오쩌둥의 급진적인 공산화 노선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도입을 주장한 노선으로, 류사오치, 덩샤오핑 등이 실용주의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류사오치는 문화 대혁명 당시 실각된 후 지병으로 사망하였지만,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후 정권을 장악하였고, 실용주의 노선은 현재 중국의 주류 노선이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흑묘백묘론'은 실용주의 노선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답과 해설

18. ①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오히려 주목해야 할 인물은 그입니다. 그의 노선은 매우 급진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한 바 있으며, 그는 현재 인도 국민 회의의 수장으로서 꾸준히 **자국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가들이라면 자치권을 주는 정도에서 만족할지도 모르나, 그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등을 통해 밀줄 친 ‘그’는 **자와할랄 네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자국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

: 밀줄 친 ‘그’가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그’는 인도의 완전한 ‘자치’를 주장한 마하트마 간디가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

: 밀줄 친 ‘그’가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그’는 자와할랄 네루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자와할랄 네루**는 콜롬보 회의에서 저우언라이와 함께 평화 5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콜카타 대회의 개최와 진행을 주도한 인물은 **틸라크**입니다.
- ③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이끈 인물은 **람 모한 로이**입니다.
- ④ 세포이의 봉기를 지지한 인물은 당시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바하두르 샤 2세**입니다. 이로 인해 바하두르 샤 2세는 세포이의 봉기가 진압된 후 폐위되었습니다.
- ⑤ 소금 행진을 전개한 인물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 간디와 네루 ★**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롤러법 제정을 계기로 독립 운동을 시작하였고, **완전한 자치**를 주장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독립 운동 노선은 **비폭력·불복종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가 전개한 소금 행진을 통해 그의 독립 운동 노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자와할랄 네루 역시 영국에서 유학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마하트마 간디의 활동에 감명을 받아 독립 운동을 시작하였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와할랄 네루는 마하트마 간디와 달리 **무장 투쟁**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하는 한편 인도 국민 회의의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자와할랄 네루는 독립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둘 모두 인도 독립 운동사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19. ⑤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사진 해설〉

사진 속 무릎을 꿇고 있는 인물은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입니다. 동방 정책을 추진하며 공산권과의 관계를 개선코자 했던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란트의 무릎꿇기’로 알려진 사진 속 빌리 브란트의 모습은 폴란드와 동유럽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고, 이념을 초월한 그의 모습은 ㉠데탕트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냉전 완화기(데탕트)**에 미국과 소련은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1972년)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의 체결 과정은 밀줄 친 ⑤을 활용한 탐구 활동의 주제로 적절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바츨라프 하벨의 벨벳 혁명은 동유럽 공산주의권의 붕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1989년)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바츨라프 하벨의 벨벳 혁명은 밀줄 친 ①을 활용한 탐구 활동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 전쟁은 냉전 심화기에 전개된 사건입니다.(1950년~1953년)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이젠하워의 한국 전쟁 종전은 밀줄 친 ①을 활용한 탐구 활동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③ 유고슬라비아 연방과 소련의 갈등은 냉전 체제가 성립될 때에 전개되었습니다.(1940년대)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고슬라비아 연방과 소련의 갈등은 밀줄 친 ①을 활용한 탐구 활동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⑤ 통킹만 사건과 미군의 베트남 출병은 냉전 심화기에 전개되었습니다.(1964년)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네바 협정 이후 미군의 사이공 진주는 밀줄 친 ①을 활용한 탐구 활동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출제자의 COMMENT ★**

19번 문제는 ‘데탕트’, 즉 냉전 완화기(1970년대)에 대한 탐구 활동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공산주의권 분열/붕괴를 냉전 완화기와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냉전 완화기와 공산주의권 분열/붕괴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냉전 완화기와 공산주의권 붕괴(1980년대)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공산주의권 분열은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전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과 해설

20. ②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제1차 세계 대전 중 (가)은/는 러시아와 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나)을/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다르다넬스 해협을 돌파하고, 보스포루스 해협에 위치한 (나)의 이스탄불을 공격하여 흑해 항로를 개통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가)은/는 과거 식민지였던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동원하여 다르다넬스 해협을 포격하였다. 포격으로 인한 (나)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가)은/는 갈리폴리 해역에서 전격적인 상륙 작전까지 강행하였다. 그러나 (가)은/는 작전 내내 우왕좌왕하다가 케말의 지휘 아래 뚝뚝 뭉친 (나)의 군대에 완전히 궤멸되었고, 대대적인 탈출 작전을 통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가)은/는 과거 식민지였던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동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영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은/는 과거 식민지였던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동원』

: (가) 국가가 (나)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과거 식민지였던 호주와 뉴질랜드를 동원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식민 지배하였던 영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스탄불』, 『케말의 지휘 아래 뚝뚝 뭉친 (나)의 군대』 등을 통해 (나) 국가는 오스만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나)의 이스탄불』

: (가) 국가가 (나) 국가의 이스탄불을 공략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국가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이스탄불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케말의 지휘 아래 뚝뚝 뭉친 (나)의 군대』

: (나) 국가의 군대가 케말의 지휘 아래에 뚝뚝 뭉쳤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국가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무스타파 케말이 장군으로 활동한 오스만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② 영국과 오스만 제국은 크림 전쟁 당시 동맹을 맺어 러시아 제국과 교전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카자르 왕조에서 이권을 두고 경쟁한 것은 영국과 러시아 제국입니다.
- ② 영국이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한 것과 달리 오스만 제국은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과 바이마르 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이며, 오스만 제국은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④ 발칸 전쟁 당시 교전한 것은 발칸 동맹 국가들과 오스만 제국(제1차 발칸 전쟁),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스 등의 국가들(제2차 발칸 전쟁)입니다.
- ⑤ 빈에서 공방을 벌인 것은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입니다.

## ★ 출제자의 REVIEW ★

- ※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데 더없이 좋을 세트라고 강력히 자부합니다. 6월 모의평가의 기초를 반영하여 연표 문제와 독보적 난이도의 킬러 문제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준킬러 수준의 문제들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렇기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뽀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 ※ 이번 모의고사의 핵심은 ‘자료 연계’에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연계 교재의 여전한 위상을 시사해 주었기에, 연계 자료를 가볍게나마 학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4번, 5번, 6번, 11번, 13번, 15번, 16번 문제가 연계 교재의 자료를 활용한 문제들이니, 복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계 교재의 지도 자료를 다수 활용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처럼 연계 교재를 활용한 고난도 지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도도 꼼꼼히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 ※ 특히 주목하셨으면 하는 문제는 9번과 14번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자료가 제시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자료를 해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9번 문제는 자료의 정합성과 정보의 조밀함이 매우 높은 자료이죠. 높은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작년부터 새로운 킬러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두 문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 간 관계 유형’ 문제를 두 문제 출제해 보았습니다. 6월 모의평가 때 출제되지 않았지만, 작년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9월 모의평가부터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평가원의 비교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짐작해 보면 20번과 같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관계를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지역을 함께 보는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 ※ 이전보다 각국사 파트의 난이도가 낮추고 중국사, 서양사 파트의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혹시나 고난도 각국사 파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들을 원하신다면 기존(1~5회) 모의고사의 각국사 파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함께 풀어보면 좋을 기출 문제들입니다.

3번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번  
 5번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번  
 7번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15번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번  
 20번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 ※ 어려운 문제들을 해치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EASY 세계사 모의고사도 기대해 주세요:D